

## 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매개효과\*

원 진 회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3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4범주 애착 척도(RQ), 성격 양식 질문지(PSI-II),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DI)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질문에 대한 응답 누락과 응답 방식의 실수 등 측정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61명의 자료를 제외한 2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집착형과 두려움형)이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안정형과 무시형)에 비해 우울 점수의 총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집착형과 두려움형의 애착 유형 모두 우울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집착형과 두려움형의 애착 유형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모두를 매개하여 우울에 유의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 취약성의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울환자들의 치료에 애착 유형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을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애착,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우울

\* 본 논문은 2013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원진회(2013)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일부 수정하여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장문선,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702-701)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Tel : 053-950-7161, E-mail : moonsun@knu.ac.kr

Seligman(1975)에 따르면 우울증은 인생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기처럼 매우 흔한’ 질병으로, 특히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정신질환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발병연령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Moo-Estrella, Perez-Benitez, Solis-Rodriguez, & Arankowsky-Sandoval, 2005).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인구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질병들 중, 우울증은 네 번째로 심각한 질환이며 다가올 2020년에는 심장병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질환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5~10%로 추정되며, 이들 중 3~5%는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박재규, 이정림, 2011).

우울증의 주요증상은 단순한 슬픔의 수준을 넘어선 우울한 기분을 중심으로 그 외의 정서, 사고, 행동, 신체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 요소들을 포함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핵심적이며 그에 더하여 허무감, 실패감, 좌절감, 고독감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한다. 또한 이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어 자신과 세상, 미래에 대해 절망적으로 느끼게 되고, 활력과 생기가 저하되는 등 쉽게 지치며 사회활동의 회피, 불면증 등의 이상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식욕과 체중에 의 현저한 변화 등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권석만, 2003).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었다가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기분 상태의 변화이다. 반면, 일부의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만큼 병적인 우울 상태로 발전하거나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우울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들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심리적 장애가 그렇듯이, 우울을 설명하는 원인 또한 간단하지 않으며 상실과 실패의 부정적 생활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질과 취약성,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들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론은 인지적 모형과 대인관계 모형(이지연, 임성문, 2006)이 있으나, 이 두 가지 모형을 통합한 인지-대인관계모형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Gotlib & Hammen, 1992; Safran, 1990). 애착이론을 모형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있는 인지-대인관계모형은 우울증에 취약하게 작용하는 역기능적인 인지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불안정 애착관계에 있다고 여긴다.

애착이란 특정한 인물에 대해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경향성(Bowlby, 1977)으로 최근에는 주 양육자와 영아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넘어서, 한 개인이 전 생애동안 양육자가 아닌 어떤 다른 대상과도 맺을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로 의미가 확장되었다(장휘숙, 2004). 애착의 동물행동학적 모형에 따르면, 애착은 근접과 접촉을 추구하는 경향성으로 영아는 내적 및 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방식으로 애착대상을 찾고 그에게 접근하려는 행동을 나타낸다(임정선, 2007). 신체적인 애착 차원은 인간의 성숙과 주변의 환경 등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으나, 심리적 애착 차

원은 시·공간을 넘어 앞서 언급한 보통의 상황적 여건과는 무관하게 작용한다(장휘숙, 2004). Bowlby(1973)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초기에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한 애착관계 내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 즉, 내적 작동모형을 확립하게 되고 그것이 이후의 관계와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영아가 환경적 스트레스나 위협상황에 직면했을 때 양육자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일관적인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영아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스트레스와 위협상황에서 영아에게 무관심하고 거부적이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양육자는 영아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만들며, 타인에 대해서도 불안정감과 신뢰의 결핍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불안정 애착 관계로 이끌 것이다(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2005). 전 생애 발달적 측면의 연구에서, Hazan과 Shaver(1987)는 영아기의 애착 관계 유형이 개인의 성인기 애착 관계 유형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의 애착양식을 Ainsworth 등이 제안

한 안정된(Secure), 회피적(Avoidant), 불안-양가적(Anxious/Ambivalent)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반면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의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형의 형태로 내면화된다는 Bowlby의 주장에 따라,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유형론을 수정하여 자신/타인, 긍정/부정의 차원의 조합을 통한 4가지 범주의 애착 유형을 제안하였다(그림 1). 네 개의 애착 유형은 안정형, 집착형, 회피-무시형(이하 무시형), 회피-두려움형(이하 두려움형)으로 구성되며 3범주 모형보다 회피적 애착 양식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장휘숙, 1997a).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으로 내재화되어 질적으로 상이한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작동모형은 시간이 지나거나 대상이 바뀌어도 상당부분 지속되며 한 개인의 부모-자녀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후의 삶에서 맺게 될 수많은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안하얀, 서영석, 2011). 또한 이는 성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정

자기표상(의존)

		긍정(낮음)	부정(높음)
타인표상 (회피)	긍정 (낮음)	<b>I. 안정형</b> (친밀함과 자율성에서의 편안함)	<b>II. 집착형</b> (관계에의 집착)
	부정 (높음)	<b>III. 무시형</b> (친밀함에 대한 무시와 반의존성)	<b>IV. 두려움형</b>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회피)

그림 1. 성인 애착의 4범주 모형(Bartholomew & Horowitz 1991)

신건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b; 2004).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적응적이고 큰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며(장휘숙, 1997b), 통합된 정체감을 가진다(장휘숙, 2002; Zimmermann & Becker-Stoll, 2002).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증상이 현격하게 낮으며(김은정, 권정혜, 1998b), 정서조절능력(Kobak & Sceery, 1988)이나 친밀성, 사회적 능력(Griffin & Bartholomew, 1994)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Bowlby(1973)는 자신과 애착 인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적 표상 즉, 부정적 내적 작동모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초기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내적 작동모형으로 지속되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정희숙, 장문선, 2007). Carnelly, Pietromonaco와 Jaffe (199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우울 유무에 따라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과 타인 표상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우울에 취약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자신에 대해 부정적 내적 표상을 가진 집착형과 두려움형의 애착 유형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내적 표상을 지닌 안정형에 비해서는 물론, 무시형 애착 유형에 비해서도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발생에 더욱 취약하다(Murphy & Bates, 1997)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장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불안정 애착과 우울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지연, 임성문, 2006). 대표적인 연구로는 Roberts, Gotlib와 Kassel(1996)이 불안정 성인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Wei, Mallinckrodt, Russell과 Abraham(2004)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지연과 임성문(200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결과, 안정 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와 불안정 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비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은 우울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변인이다. 지난 30년간 인지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우울의 성격적 취약성을 제안하였다. Beck(1976)은 우울 에피소드를 촉발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왜곡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인지적 왜곡들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두 가지 차원의 성격 양식을 제안하였다.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지향성”의 성격 양식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인정받고자 하는 높은 욕구,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Beck, 1983; Blatt, 1974; Murphy & Bates, 1997). 반면, 성취주제와 관련된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은 성취 지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개인적인 독립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Beck, 1983). 같은 맥락에서, 정신분석이론가인

Blatt(1974)이 제안한 의존적 성격과 자기 비판적 성격은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성격양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Beck(1983)이 제시한 하위 유형 구분과 거의 일치한다.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성격양식은 우울증의 유형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이민규, 2000a). 인지적 입장의 Beck(1983)에 따르면,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이 우세한 사람들은 실연이나, 죽음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는 반면,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위협받고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건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하게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Blatt(1974)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의존적”성격의 개인이 의존성 우울증이 되기 쉬우며, 능력의 과시와 성취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유지하려는 “자기 비판적”인 성격이 자기 비판적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울과 관련된 성격양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은 모두 성격 양식과 특정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유발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모형을 지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민규, 2000a).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모형은 우울을 일으키는 원인을 개인의 소인 혹은 소질에서 찾으려고 하며, 특정한 성격 양식이 지배적인 사람은 그 성격 양식의 내용과 일치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할 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 따라서 우울 발생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을 가진 사람은 그 성격 양식의 취약성과 연관된 생활사건에 부딪힐 때 우

울 증상을 더욱 쉽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김차희, 이민규, 2006; Blatt & Zuroff, 1992).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은 동시에 불안정 애착과도 관련이 있다(Murphy & Bates, 1997; Zuroff & Fitzpatrick, 1995). Zuroff와 Fitzpatrick(1995)은 연구를 통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이 내적 작동모형의 부정적 자기개념을 공유하며 불안정 애착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불안정 애착 유형들은 Blatt(1974)과 Beck(1983)이 제안한 우울증을 촉발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취약성 요인인 성격 양식과도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개인의 애착 유형과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을 애착의 유형을 구분하는 의존(자기 표상)과 회피(타인 표상)의 측면에 놓고 함께 비교해보면, 두 가지의 성격 양식 모두가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는 높은 의존 즉, 부정적 자기 표상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Zuroff & Fitzpatrick, 1995). 우울 취약 성격 양식과 불안정 애착 유형의 관련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회지향성”의 성격 양식은 유기에 대한 불안과 함께 과도한 의존과 타인으로부터의 승인에 대한 강력한 욕구라는 동질적인 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 이러한 대인 관계적 취약성은 “집착형” 애착 유형을 상기시킨다(Murphy & Bates, 1997). 그러나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은 좀 더 이질적인 개념들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Blatt(1974)은 성취 지향적 개인을 자기 처벌적 접근이 내면화된 자기비판과 완벽주의로 설명하였다. 반면에, Beck(1983)은 “자율지향성” 성격양식의 설명에서 자기비판의 개념을 포함함과 동시에 독립심과, 자기 의존 그리고 친밀성에 대한 회피를 더욱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은 완벽주의와 자

기비판의 한 측면과 자기의존 및 독립심, 타인에 대한 회피의 한 측면 등 두 가지 구별되는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은 성취를 위한 과도한 노력과 성취 실패에 대한 우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기 비판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강하게 포함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독립심과 자기의존에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의 정도가 약하다.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강조하면서, Blatt(자기 비판성/완벽주의의 하위요인으로부터 측정)이 설명한 자율지향성의 구성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한 “두려움형” 애착 유형을 상기시킨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반면에 Beck(통제와 방어적 분리의 하위요인으로부터 측정)이 설명한 자율지향성의 구성개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덜 부각되어 있는 독립심과 자기의존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려움형”과 “무시형” 두 가지 애착 유형을 모두 상기시킨다(Murphy & Bates, 1997). 또한 자율지향성에 속한 자기 비판적 구성 개념은 타인으로부터의 승인의 욕구와 자기 가치감의 취약성이라는 개념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지향성의 구성 개념과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 집착형 애착 유형과도 개념적으로 유사하다(Murphy & Bates, 1997).

나아가 다른 여러 학자들도 역시 우울한 성격 취약성과 애착 유형 사이의 중복되는 개념들을 언급하며, 애착 유형과 성격 양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Zuroff와 Fitzpatrick(199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지향성과 “집착형” 애착 유형, 자율지향성과 “두려움형” 애착 유형 각각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Murphy와 Bates(1997)도 “집착

형” 애착 유형이 사회지향성과 일치하고, “두려움” 애착유형이 자율지향성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Reis와 Grenyer(2002)는 “집착형” 애착 유형과 의존성, “두려움” 애착 유형과 자기 비판성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Besser와 Priel(2003)은 결혼한 커플들을 상대로 수행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참가자일수록 그들의 배우자가 높은 자기 비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생리적, 사회적, 정신적 요구들로 인해 발달상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우울을 비롯한 여타 정신건강에서의 고위험 집단에 속한다(조주영, 2006).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대학생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업 동기,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한덕웅, 전경구, 이창호, 1991). 이들은 고등학생 시기까지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졸업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위하여 학업과 진로 및 취업문제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불확실한 미래, 시험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김상옥, 2010)하며 갑자기 늘어난 대인관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우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애착 유형과 성격 양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특정 애착 유형과 성격 양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모형은 정립되지 못하였다. 국외에서의 연

구를 살펴보면 Besser와 Priel(2005)가 애착과 성격 양식, 우울간의 관련성을 3세대 여성들의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비판성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타인에 대한 의존성의 매개 역할은 찾지 못하였다. 반면 Permy, Merino와 Fernandez-Rey(2010)는 집착형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의 매개적 역할과, 두려움형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하는 등 이들 변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혼입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Permy 등(2010)의 연구는 성격 양식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단계적 회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변수의 오차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여성은 집착형 애착 유형, 남성은 무시형 애착 유형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애착 유형 분포에서의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는 선행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자대학생(86.8%)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비교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사회의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바람직하다

고 여기는 가치관이나 행동규범들이 있으며, 서구문화에 비해 관계중심적인 공동체 의식이 더욱 선호되는 우리나라는 회피형 애착유형보다 집착형 애착유형의 비율이 높다(김동직, 한성열, 1997)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서구문화의 서양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곧바로 대입시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맺은 애착의 질이 내적 작동모형의 형태로 지속되어 성인기의 애착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더불어 애착 유형과 성격양식,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정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성격 양식 사이의 모든 경로를 가정한 대립모형과 애착 유형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각 성격 양식의 부분매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그림 2). 나아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집에서의 성별 편향을 줄이고, 변수들의 측정오차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텔 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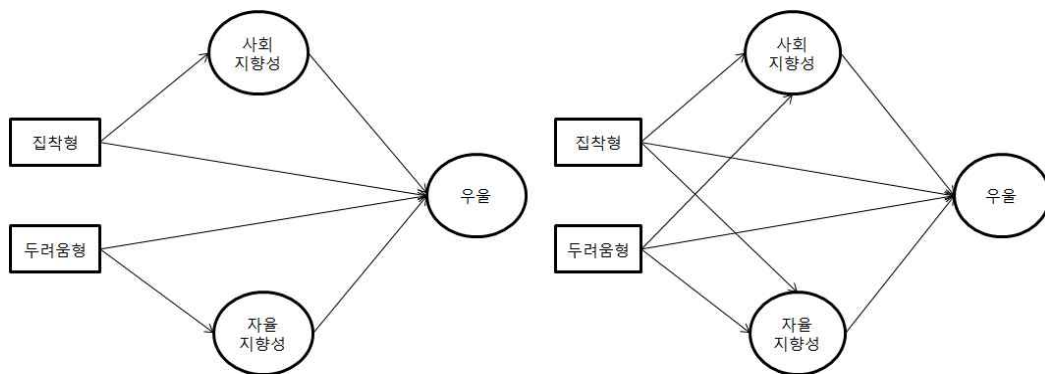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과 대립모형

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작동모델의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집착형, 두려움형)은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안정형, 무시형)과 우울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내적 작동모델의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집착형, 두려움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의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315명이었으며, 이 중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측정도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성실하게 응답한 61명의 자료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5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 남학생은 104명(40.9%)이었고, 여학생은 150명(59.1%)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56세(SD=2.26)이었다.

### 측정도구

#### 4범주 애착 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로,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두 가지의 자기모델(긍정/부정)과 두 가지의 타인

모델(긍정/부정)을 각각 조합하여 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의 4가지 애착 양식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안정형 애착 양식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이며, 무시형 애착 양식은 자기모델은 긍정적인 반면 타인모델은 부정적이다. 또한 집착형 애착 양식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두려움형의 애착 양식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 모두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응답자들은 네 가지의 애착 양식을 설명하는 진술문을 읽고 각각의 진술문이 자신과 일치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한 다음, 네 가지의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양식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상의 응답한 결과와 네 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애착양식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표시한 61명의 연구대상자들은 특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척도의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박은영, 1998)이었다.

#### 성격 양식 질문지

우울취약성격인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Robins 등(1994)의 PSI 개정판(Modified version of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을 이민규(2000b)가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한국판 PSI-II(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질문지는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이민규(2000b)가 보고한 내적일치도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각각 .82와 .81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간의 상호상관은  $r=.19$ 로 낮게 나타나 두 요인이 비교적 독립적이며 우울 자체를 측정하기 보다는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민규, 2000b).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89와 .92로 나타났다.

#### 한국판 Beck 우울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임상적인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BDI 우울척도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는 21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로,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해 보았다. 둘째, 애착 양식, 우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양식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애착 양식에서 긍정적 자기 모델을 가진 사람들과 부정적 자기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특정 애착 유형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을 거쳐

우울로 가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해보았다. 다섯째, 특정 애착 유형이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이에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부합도 지수는 CFI, GFI, NFI, TLI, SRMR, RMSEA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NFI, CFI,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RMSEA는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서 사용한 유의수준은 .05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사용한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20.0이었다. 본 연구의 결측치에 대해서는 SPSS 18.0의 결측값 분석에서 EM (Expectation-Maximization)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 전체 매개효과만 확인할 수 있어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와 결과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연구대상의 애착 유형 빈도

본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의 애착 유형의 빈도는 안정형(55.1%), 집착형(19.7%), 무시형(16.1%), 두려움형(9.1%)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의 애착 유형 분포표

	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
대학생	140(55.1%)	41(16.1%)	50(19.7%)	23(9.1%)

측정변수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안정 애착 유형은 우울과의 부적 상관을, 불안정

애착 유형은 우울과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은 집착형, 두려움형과 정적 상관을,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은 집착형, 두려움형 뿐만 아니라 무시형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은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표 2. 각 변인들에 대한 연구대상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SD)		
	전체(n=254)	남(n=104)	여(n=150)
안정형	3.90(1.47)	3.95(1.40)	3.86(1.52)
무시형	3.00(1.60)	3.18(1.64)	2.88(1.56)
집착형	2.94(1.59)	2.81(1.53)	3.03(1.64)
두려움형	2.42(1.57)	2.24(1.40)	2.55(1.68)
사회지향성	86.98(15.34)	84.72(15.51)	88.56(15.07)
자율지향성	75.87(17.79)	75.07(19.01)	76.41(16.94)
우울	7.86(8.15)	6.86(8.53)	8.56(7.84)

표 3.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1. 안정형	-						
2. 무시형	-.166*	-					
3. 집착형	-.294*	.023	-				
4. 두려움형	-.508*	.355*	.322*	-			
5. 사회지향성	-.239*	-.142*	.488*	.341*	-		
6. 자율지향성	-.478*	.526*	.309*	.623*	.341*	-	
7. 우울	-.490*	.228*	.280*	.545*	.401*	.613*	-

\* $p < .05$

나타냈다.

집단보다 우울 점수의 총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4).

독립표본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애착 유형들 중, 내적 작동모델에서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안정형, 무시형)과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집착형, 두려움형)간의 우울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이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착형, 두려움

표 4.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우울 수준 차이 검증

구분	자기모델 긍정유형 (n=181)	자기모델 부정유형 (n=73)	자기모델 긍정유형 (n=181)	자기모델 부정유형 (n=73)	t	p
	평균		표준편차			
우울	5.729	13.151	6.130	9.997	-5.911	.000*

\*p < .05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df	$\chi^2$	NFI	TLI	CFI	GFI	SRMR	RMSEA	AIC
측정모형	69	195.199	.925	.934	.950	.899	.059	.085 (.071 ~ .099)	267.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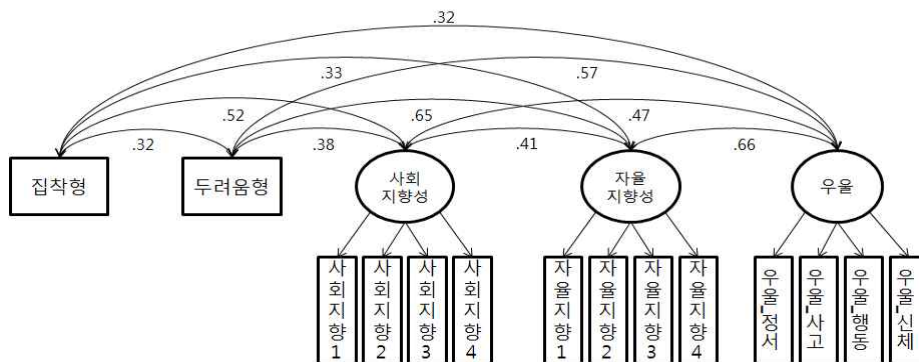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형의 애착 유형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TLI .934, CFI .950, RMSEA .085 등과 같이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홍세희, 2000)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집착형 애착 유형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의 매개와 두려움형 애착 유형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의 매개만을 가정한 연구

표 6. 위계적 경쟁모형 간 부합도 차이검증 결과

모형	dfD	$\chi^2D$	P
대립모형	2	20.963	.000*
연구모형			

\* $p < .05$

표 7. 연구모형과 대립모형의 부합도 지수

모형	df	$\chi^2$	NFI	TLI	CFI	GFI	RMSEA	AIC
연구모형	72	221.798	.915	.925	.941	.895	.091 (.077~.104)	287.798
대립모형	70	200.834	.923	.933	.948	.898	.086 (.072~.099)	270.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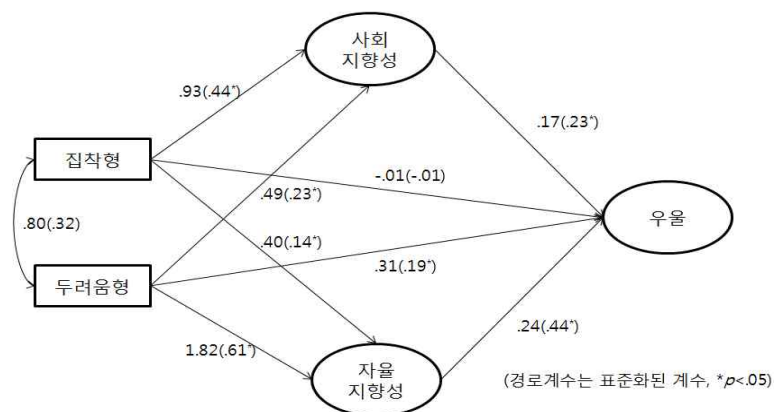


그림 4. 모수추정 결과

모형과,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유형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사이의 모든 경로를 가정한 대립모형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보았다.

대립모형에서 두 개의 경로가 설정되지 않은 연구모형은 대립모형에 대해 위계적으로 내포된 형태로 이들 간의 적합도 비교를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연구모형은 대립모형에 비해 자유도의 차이가 2로 좀 더

간명한 모형이긴 하나,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가 20.963 감소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00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기각하고 대립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모형과 대립모형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7, 그림 4).

이후, 지지된 모형인 대립모형을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특정 애착 유형에서 우울로 가는

표 8. 수정모형에 대한 효과분해표

관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총 효과	직접 효과	매개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매개 효과
집착형 → 사회지향성	.926	.926	-	.443*	.443*	-
집착형 → 자율지향성	.398	.398	-	.135*	.135*	-
두려움형 → 사회지향성	.489	.489	-	.231*	.231*	-
두려움형 → 자율지향성	1.819	1.819	-	.661*	.661*	-
사회지향성 → 우울	.174	.174	-	.233*	.233*	-
자율지향성 → 우울	.236	.236	-	.445*	.445*	-
집착형 → 우울	.244	-.010	.255	.157*	-.007	.164*
두려움형 → 우울	.820	.306	.514	.520*	.194*	.326*

\* $p < .05$

표 9.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매개변수들의 유의성 검증

예언변수	매개변수	준거변수	매개 효과	95% 신뢰수준 Bias-Corrected
집착형 애착양식 →	사회지향성 →	우울	.161*	(.077 .236)
집착형 애착양식 →	자율지향성 →	우울	.094*	(.033 .169)
두려움형 애착양식 →	사회지향성 →	우울	.085*	(.044 .173)
두려움형 애착양식 →	자율지향성 →	우울	.429*	(.313 .577)

\* $p < .05$

경로에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모두를 포함한 전체 매개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리고 집착형과 두려움형 애착 유형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각각의 두 가지 경로 즉,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각 애착 유형별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두 가지 매개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표 9).

## 논 의

본 연구는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인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연구를 통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의 애착 유형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안정형(55.1%), 집착형(19.7%), 무시형(16.1%), 두려움형(9.1%)의 순서를 보였다. 장휘숙(1997a)의 연구에서는 안정형, 집착형, 두려움형, 무시형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으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서는 안정형, 두려움형, 무시형, 집착형의 분포를 보이는 등 각 선행연구들마다 애착 유형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안정형은 모든 연구에서 40%~50% 내외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애착 유형 빈도는 불안정 애착 유형 중 집착형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무시형이나 두려움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김광은, 2004).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양육방식이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김광은, 2004).

둘째, 상관분석을 통해 애착 유형,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 유형은 우울과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불안정 애착 유형은 우울과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 안정 애착의 사람들과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 사이에는 심리적 요인과 정신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은정, 권정혜, 1998a; 장휘숙, 1997a; Permuy et al., 2010; Wei et al., 2004). 애착 유형과 성격 양식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은 집착형, 두려움형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은 집착형, 두려움형 뿐만 아니라 무시형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 유형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사이에 중복되는 개념이 존재(Besser & Priel, 2003; Murpy & Bates, 1997; Reis & Grenyer, 2002; Zuroff & Fitzpatrick, 1995)하며, 부정적 내적 표상을 공유한다(Zuroff & Fitzpatrick, 1995)는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우울 취약 성격 양식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며(Permuy et al., 2010), Beck(1983)과 Blatt(1974)이 제안한 우울 증의 발생과 유지 과정에 두 가지의 성격 양식이 관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독립표본 차이 검증을 통해 내적 작동모델에서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

단과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의 우울 수준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이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집단에 비해 우울 점수의 총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유무에 따라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에서 차이(Carnelly et al., 1994)가 있으며, 특히 자신에 대해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 발생에 취약하다(Murphy & Bates, 1997; Permuy et al., 2010)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초기 애착 대상과의 불안정한 관계형성은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며 이러한 부정적 자기표상이 내적 작동모델로 유지되어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특정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한 결과,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애착 유형과 성격 양식 사이의 모든 경로를 가정한 대립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불안정 애착 유형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모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 표상 즉, 높은 의존을 공유(Zuroff & Fitzpatrick, 1995)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가지 성격 양식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는 측면들 간의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집착형 애착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두려움형 애착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자기표상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특히,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 표상을 가진 사람이 가장 우울에 취약하다

(Carnelly et al., 1994)는 주장과 일치한다. 두려움형 애착 유형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자신에 대해 방어적인 경향을 가져 오히려 그에 따른 외로움이나 우울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나, 집착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의 관계지향적인 사회 문화적 특성상 집착형 애착 유형의 특성이 오히려 정서에 미치는 부적응적 영향을 완화시켜 나타나는 결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조아라, 김혜영, 오경자, 2011). 집착형과 두려움형의 애착 유형 모두 우울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다양한 변인들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이지연, 임성문, 2006).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 각각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이 모두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환경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인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로 설정과 각종 성취에의 압박, 갑자기 늘어난 대인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 자율지향성과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 모두와 일치하는 복합적인 환경적 요구에 직면한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우울에 취약한 특정 성격 양식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진다(김차희, 이민규, 2006; Blatt & Zuroff, 1992)는 성격-사건 일치성 가설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인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의 매개효과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불안정 애착 유형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과 일치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환경으로 인한 것(이민규, 2000a;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이라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애착 유형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서 성격 양식의 매개적 역할을 지지한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불안정한 초기 애착 관계로 형성된 부정적 자기 표상이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어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특정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이 모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애착 유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을 추구하며 관계에 몰두하는 집착형 애착 유형의 직접효과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주관성을 가지는 것이 적응적인 서양 사회의 특성과는 다르게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관계지향적 행동이 수용되고 권장되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정적 자기 표상을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이들이 가지는 우울 취약성을 인지하고, 내담자의 취약한 성격 양식과 일치하는 현재의 환경적 요구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자기 표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치료에서의 접근과 개입

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 고위험 집단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와 달리 표집에서의 성별 편향을 제거하고, 변인들 간 관계 구조 분석을 위해 측정오차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비교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환경에서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는 데에서도 또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애착유형과 성격 양식이라는 개인적 특성변인들을 사용하여 우울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우울 취약성을 가진 개인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울의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방법 모색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표집에서의 성별 편향을 배제하였으나, 여전히 특정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으며, 비임상적 표집에서의 매개효과의 타당도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임상집단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애착 유형별로 비교하는데 있어 일부 유형은 다소 표집인원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애착유형 분류는 피험자의 자기보고에 의해 네 가지 문항 중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며,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애착 유형 분류를 위한 검사 개발 및 측정 방법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Permy 등(2010)의 연구와 동일하게 우울 정서에 대한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 변인인 애착 유형과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우울 취약 성격 양식을 원인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이 변인들 만으로는 우울정서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성격 양식이라는 하나의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구조모형의 간명성을 꾀하였으나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좀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인과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권석만 (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김상옥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권정혜 (1998a).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김은정, 권정혜 (1998b). 우울증상과 대인관계 취약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55-169.  
 김차희, 이민규 (2006). 성격 양식 및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이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63-175.  
 박은영 (1998). 애착유형에 따른 방어 전략의 우울성 비교.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규, 이정립 (2011).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 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9, 99-128.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안하얀,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따른 집단 분류와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집단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43-969.  
 이민규 (2000a).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47-257.  
 이민규 (2000b). 한국판 PSI-2 (the Personal Style Inventory-2) 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05-317.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 임정선 (2007). 한국과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39-254.
- 장휘숙 (1997a). 성인애착의 3 범주 모형과 4 범주 모형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 (1997b). 애착의 전생애 모형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 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장휘숙 (2004). 애착과 애착의 발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5(1), 16-27.
- 정화숙, 장문선 (2007). 편집성향집단의 애착, 우울 및 역기능적 대인관계. *상담학연구*, 8(1), 147-160.
- 조아라, 김혜영, 오경자 (2011). 한국 대학생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구조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337-347.
- 조주영 (2006).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분석-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에니어그램연구*, 3(2), 37-61.
- 한덕웅, 전겸구, 이창호 (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991(단일호), 259-26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L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265-290.
- Besser, A., & Priel, B. (2003). A multisource approach to self critical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4), 515-555.
- Besser, A., & Priel, B. (2005).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ity vulnerabilities to depression in three generations of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8), 1052-1073.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10), 7-157.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5), 527-562.
- Bowlby, J. (1973). Affectional bonds: Their nature and origin.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38-52.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An expanded version of the Fiftieth

- Maudsley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19 November 1976.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3), 201-210.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27.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John Wiley & Sons.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3), 308-319.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135-146.
- Moo-Estrella, J., Pérez-Benítez, H., Solís-Rodríguez, F., & Arankowsky-Sandoval, G. (2005). Evaluation of depressive symptoms and sleep alterations in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medical research*, 36(4), 393-398.
- Murphy, B., & Bates, G. W. (1997). Adult attachment styl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835-844.
- Permuy, B., Merino, H., & Fernandez-Rey, J. (2010).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diational rol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5(1), 21-27.
- Reis, S., & Grenyer, B. F. (2002). Pathways to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5(4), 445-459.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299.
- Safran, J. 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I.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1), 107-121.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 Abraham, W. T.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01.
- Zimmermann, P., & Becker-Stoll, F. (2002). Stability of attachment representations during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25(1), 107-124.
- Zuroff, D. C., & Fitzpatrick, D. K. (1995). Depressive personality styles: Implications for adult attach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253-265.

원 고 접 수 일 : 2013. 12. 20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2. 16

게 재 결 정 일 : 2014. 04. 08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otropy and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Jin Hee Won

Mun Seon Ch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al effects of Sociotropy and Autonomy on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A total of 315 college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PSI-II), and the Relationship Questionnaire(RQ). Individuals having attachment styles with a negative model of self (preoccupied and fearful) showed higher scores on the BDI than those having attachment styles with a positive model of self (secure and dismissing). Sociotropy and Autonomy exhibit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ertain attachment styles and depressive symptoms. Findings in the study helps i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vulnerability to depression.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ed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attachment style and sociotropy/autonomy personality dimensions while intervening depressive patients. Finally, the significances, implications, constraints and proposal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sociotropy, autonomy, personal style, depression